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0.(금) 14:00 (2026. 11. 21.(토) 조간)

우리 사회 따뜻한 혁신기업 12개사, 「올해의 사회적기업」 첫 선정

- 고용노동부,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기념식 개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돌봄·주거,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우수성과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20일(금), 오후 2시 소셜 캠퍼스 온 서울2 센터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12개 우수기업을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올해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 성장을 함께 이뤄낸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공모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들은 돌봄, 주거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빈틈을 채우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먼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룸은** 친환경 모듈러 주택과 디저트 제조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인별 숙련도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더사랑㈜**은 친환경 제품 제작과 발달장애인 예술 작품의 상품화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돕고 있다.

㈜더블루는 공공기관과 기업 내 카페 10개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직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 임금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있다. **찬솔 사회적협동조합**은 폐플라스틱을 친환경 교구로 재탄생시키고,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자립을 돕고 있다.

돌봄·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참다올푸드**는 산업체 급식과 도시락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더나아짐**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교육과 돌봄, 진로체험을 통합 제공해 성장과 자립을 돕고 있다.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는 장애인·어르신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코러싱**은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즘**은 폐현수막 등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많은 청년들에게 공공디자인·자원순환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협동조합 판**은 지역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축제·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일거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선정기업 대표들에게 「올해의 사회적기업」 현판을 직접 수여하고 그간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거리를 발굴하고, 이를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로 연결해 왔다”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의 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기념식 개요
2.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사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부경 (044-202-7425)
		담당자	사무관	김정은 (044-202-74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기념식 개요

□ **(목적)** 사회적 가치가 뛰어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적기업의 사기 진작 및 성장 발판 마련**

□ **(일시)** 2026. 11. 20.(금), 14:00~15:00

□ **(장소)** 소셜캠퍼스 온 서울2센터 이벤트홀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30 T타워 18층)

□ **(참석자) 장관님**, 통합고용정책국장,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기업 대표 등 20여명

□ **(주요내용)** 올해의 사회적기업 현판 수여 및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기업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 등

□ 세부 진행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2~14:05	3′	▲인사말씀	장관님
14:05~14:07	2′	▲홍보영상 상영	
14:07~14:20	13′	▲「올해의 사회적기업」 현판 수여 및 기념촬영 - 선정기업 12개소	장관님
14:20~14:55	35′	▲현장 간담회 -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장관님, 선정기업 12개소
14:55~15: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장관님

붙임 2 **올해의 사회적기업 선정 사례**

주식회사 이룸

"맞춤형 공정과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뒷받침하다"

주식회사 이룸은 강원 영월에서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목공·조립, 세정제 생산, 초콜릿·쿠키 제조 등 다양한 사업에 근로자의 신체 조건과 숙련도를 고려한 맞춤형 공정을 적용해 직무 참여와 성장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일대일로 배치하고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무료 기숙사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근무를 돕고 있다.

모듈러 주택 특허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제작과 식품 제조를 병행하며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과 영월 지역 행사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성장의 성과를 나누고 있다.

주식회사 더사랑

"발달장애인과 고령자가 동료로 만나 함께 성장하는 일터"

주식회사 더사랑은 발달장애인과 고령자가 2인 1조로 협력하는 고용모델을 운영한다. 고령자의 경험이 발달장애인의 업무 습득과 직장 적응을 돕고, 고령자도 동료를 지원하며 새로운 역할과 일하는 보람을 얻고 있다.

조립·검수·포장 등 업무를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그림과 글씨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작가로 발굴해 작품을 상품으로 연결한다. 친환경 제품 제작과 포장·배송대행을 통해 노동과 창작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 간다.

직무지도와 지속적인 교육,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오래 일하며 성장하는 직장생활을 지원한다. 지역 장애인복지기관과 연계해 현장실습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작가의 전시·판매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주식회사 더블루

"기업 안의 카페를 장애인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다"

주식회사 더블루는 공공기관과 기업 내 카페를 운영하며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공간과 동선 설계부터 바리스타 채용·교육, 품질·위생관리까지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카페 전 지점에 비장애인 매니저와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이해하기 쉬운 직무교육 자료를 활용한다. 개인의 장애 특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따라 업무량을 조정하며, 근속과 역량 향상에 따른 승진제도도 운영한다.

바리스타뿐 아니라 셀프카페·사내복지공간 관리 등으로 직무를 넓히고 있다. 카페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장애인생산시설의 제품을 구매·판매하고, 취약계층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취업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내음 사회적협동조합

“일할 기회를 넘어 오래 일한 경험이 인정받는 일터로”

내음사회적협동조합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실제 일자리와 연결하고 있다. 소독·방역, 원예관리, 기념품·판촉물 제작, 잡곡 소분·임가공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업무를 제공한다.

직업적응훈련과 직무향상훈련을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히고, 근로장애인의 급여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해 근속이 급여에 반영되도록 했다. 명절수당과 휴가비 등 복지제도도 운영하며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잡곡 제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한다.

찬솔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이 생산자에서 교육강사와 개발자로 성장하다”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사들이 설립했다. 제조사업과 카페를 운영하며 발달장애인이 제품 생산, 바리스타·매장관리·로스팅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페트병 뚜껑의 수거·세척·분류·분쇄부터 제품 생산까지 직접 수행해 친환경 조립교구 ‘늘품’을 만든다. 발달장애인 교육강사를 양성해 다른 발달장애인과 치매 어르신 등에게 늘품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늘품 기능경진대회를 통해 훈련용 부문 입상자에게 취업 특전을 제공하고, 창의용 부문 입상작은 디자인 등록과 로열티 계약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이 제품 생산을 넘어 교육과 개발에 참여하고 창작의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 참다올푸드

“따뜻한 한 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웃의 일상을 돌보다”

주식회사 참다올푸드는 기업·학교 등의 단체급식과 이동급식·도시락 사업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조리·배식·포장·배송 등 업무를 건강상태와 숙련도에 맞게 배치하고,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

급식사업에서 쌓은 조리·영양관리·배송 역량을 지역 돌봄으로 넓혀 통합돌봄·일상돌봄 식사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건강과 섭취 편의를 고려해 식사를 구성하고, 전달 과정에서 안부를 살피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저소득 가정에 밑반찬과 간식꾸러미 등을 나누고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도 운영하며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주식회사 더나아짐

“장애와 가정형편을 넘어 배움과 자립이 이어지는 교육”

주식회사 더나아짐은 발달장애 청소년과 학교 밖·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등을 위해 기초학습, 문화예술, 체육, 사회성·자립활동을 연결한 통합교육을 제공한다. 특수교육·사회복지·음악·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협력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설계한다.

수업과 상담,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디지털 로그’를 활용해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고, 보호자 의견을 다음 수업에 반영한다. 합창단 ‘더이어짐’, 미술작품 전시와 스포츠대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성취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복지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소아암 치료 아동 등을 위한 체육교육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집을 고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에서 살아갈 기반을 만들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집수리 자활기업들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단열·창호·보일러 등을 개선해 안전한 주거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지역 자활기업의 일자리도 연결한다.

전주시와 협력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다. 계층혼합형·여성안심형·청년예술인형 등 입주 대상에 맞게 운영하고, 공동체 공간과 입주민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웃과의 교류를 지원한다.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춘별채’를 공급해 청년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했다. 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금융의 협력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에서 생활할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돌보는 사람의 안정된 일자리가 좋은 돌봄으로 이어지다”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는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돌봄종사자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방문요양·가사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용자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다음 일자리 연결 시까지 최대 2주간 평균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안정기금을 운영한다.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직무교육과 건강관리, 장기근속 지원으로 안정적인 근무를 돕는다.

긴급돌봄·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복지관·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한다. 일시적 지원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으로 연계하며 지역의 돌봄안전망을 넓히고 있다.

주식회사 코러싱

“전문기술을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이웃의 생활안전으로 잇다”

주식회사 코러싱은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설계·공사·감리를 수행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근로자가 실제 전문업무에 참여하며 소득을 얻고, 업무 경험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업무 과정의 문제와 고객 요구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전문인력의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노력을 취약계층의 직무능력 향상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은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활용한다. 전기시설 관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유·무상 전기점검과 수선을 제공하며, 전문사업의 성과를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로 연결하고 있다.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이즘

“버려지는 자원을 디자인으로 되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잇다”

주식회사 공공디자인이즘은 디자인을 통해 환경폐기물을 줄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넓히고 있다. 친환경 현수막과 종이 소재 홍보물을 제작하고, 폐현수막·폐원단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며 자원순환을 실천한다.

제작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교육·워크숍을 운영한다.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에는 지역 고령자가 참여하여 자원순환이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시민 대상 업사이클링 체험과 친환경·리사이클링 제품 전시를 운영하고, 지역기관과 협력해 플리마켓 등 주민 참여 활동을 펼친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가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 판

“한 번의 축제가 지역의 다음 일자리와 문화활동으로 이어지다”

협동조합 판은 지역의 자연·역사·음식·생활문화와 시민의 관심사를 발굴해 축제와 행사를 기획·운영한다. 지역 인력과 기업을 우선 연결하고, 행사에 쓰이는 예산이 지역의 고용과 거래로 이어지도록 한다. 공원·산책로·시장 등 지역의 공간도 주민이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 활용한다.

대학·공공기관과 문화기획 실무교육을 운영해 지역에서 활동할 기획자를 양성하고 있다. 직원이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의 결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무대·공간·체험·물품 등을 사회연대경제기업·문화예술기업과 거래하며 지역의 협력관계를 넓히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지역 협력기업에 행사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주며, 한 번의 행사가 다음 문화활동의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